

월간미술



2015 02
www.monthlyart.com

9 771227 512009
ISSN 1227-3120
02
한국문화재단
Korea Cultural Foundation

단색화 열풍의 무한 질주

2014년 미술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1970~1980년대에 등장한 단색화였다. 7월 한 달간 갤러리 현대에서 열린 <정상화전>과 8월 말부터 50일간 계속된 국제갤러리의 <단색화의 예술전>은 2014년 전시 중 단연 핫이슈였다. 단색화 열풍은 아트페어에서도 나타났다. 9월에 열린 국내 최대 미술품 장터 KIAF에서 9개 화랑이 선보인 단색화 작품은 박서보 13점, 윤형근 9점, 정상화 6점, 정창섭 5점, 하종현 3점 등 총 36점이었으며, 공급가액만 32억 원에 달했다. 아트바젤, 프리즈 마스터즈, 피악 등 해외 아트페어에서도 단색화 작품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단색화 열풍을 수치로 확연히 볼 수 있는 곳이 경매시장이다. 서울옥션과 K옥션에서 낙찰된 단색화 작품이 3월과 6월 경매 때는 각각 12점과 10점에 불과했는데, 9월 경매에서 20점, 그리고 12월 경매에서는 35점으로 급증하고 12월의 낙찰총액은 9월 경매의 4배에 달했다. 낙찰률을 보면 정상화가 94%, 윤형근 84%, 박서보 81%, 그리고 하종현과 정창섭의 작품이 모두 팔려 단색화 작가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정상화의 거래가 급증하며 낙찰총액이 상승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서울옥션 홍콩경매에서도 3점이 8억9,352만 원에 팔렸고, K옥션이 참가한 홍콩 UAA경매에서도 3점이 2억2,746만 원에 팔렸다. 표4

크리스티 홍콩 가을경매에서도 이우환을 포함한 단색화 섹션이 신설되어 열기가 대단했다. 정상화와 윤형근의 낙찰액 합계가 7억6,261만 원에 달했다. 단색화 작가들의 국내외 전시가 잡혀 있고, 전속화랑 간, 그리고 경매회사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2015년에도 단색화 열풍과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IAF에 출품된 단색화 작품들(위)과 서울옥션 134회 경매에 출품된 단색화 작품 프리뷰 광경(사진 서진수)